

청소년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도 중 수**
정 문 성

- I. 서 론
- II. 청소년 생활시간과 여가활동시간
- III. 청소년 여가활동장소와 비용
- IV. 청소년 단체활동과 여가생활
- V.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실태
- VI. 여가활동에 대한 의식
- VII. 정책 제언

I. 서 론

1. 연구 목적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이 임시준비 위주의 학교교육, 여가와 놀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발표되었던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논의들이 대부분 개인적인 경험이나 매스컴의 보도 등 단

편적인 자료와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 그 한계가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청소년 여가생활의 실태와 의식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여가생활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이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며 나아가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여가생활에 관한 문헌연구와 전국을 대상으로 중·고·대학생과 근로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는, 청소년의 여가생활에 관한 기존의 보고서와 논문 그리고 보도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여 이론적 배경을 체계화 하였다. 이러한 문헌 분석을 통해 여가의 개념과 구성요소, 청소년

* 이 논문은 본 원의 1992년도 연구사업인 "청소년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의 결과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 공동연구자는 본 개발원의 도중수(연구위원), 정문성(연구원)임.

년들에게 있어서 여가의 중요성과 여가가 갖는 의미, 그리고 청소년문화와 여가의 관계, 청소년 여가활동의 범주 등에 관하여 정리하고 이를 설문 조사의 기준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표본규모는 지역, 성별, 교급별 인구구성비에 근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한 4,000명이었고, 실제로 조사된 수는 중·고·대학생으로 구성된 학생청소년이 3,380명, 근로청소년은 452명이었다.

설문지는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과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사전조사를 통해 설문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해당학교나 근무지 또는 청소년 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설문지는 학생청소년과 근로청소년용 설문지를 따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조사 완료 후 한국심리검사소에 의뢰하여 SPSS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분석에 기초가 되는 변인들로는 성별, 집단별, 지역별 변인을 사용하였다.

3. 연구 내용

청소년들의 여가생활 실태를 알아보고자 조사한 내용은 〈표 I〉과 같다. 조사내용은 크게 청소년의 생활시간과 여가활동시간, 청소년의 여가활동장소와 비용, 청소년의 단체활동과 여가생활,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실태, 여가활동에 대한 의식 등 다섯영역으로 나누었다.

첫째로 ‘청소년의 생활시간과 여가활동시간’은 우선 생활시간의 경우 청소년들의 하루 일과를 중심으로 학교생활시간, 수면시간, 공부시간, 집안일하는 시간, 여가시간 등을 조사하였고, 여가활동시간은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 한달 단위,

일년 단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둘째로 ‘청소년의 여가활동장소와 비용’은 여가활동장소, 여가비용, 친구와의 대화내용에 관해 조사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대중매체이용 실태’는 전파매체, 인쇄매체와 특히 독서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섯째 ‘여가활동에 대한 의식’은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성, 그리고 부모들이 청소년 여가활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II. 청소년 생활시간과 여가활동시간

청소년의 하루 생활은 크게 학교(직장)생활 시간대와 가정생활 시간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구미의 여러 선진국들처럼 학교수업이 적고 청소년 스스로가 원하는 과외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는 달리 우리나라 학생 또는 근로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 또는 직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오후 늦게서부터 저녁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첫째로, 청소년의 하루 생활을 학교(직장)에서 보내는 시간과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해 보고, 특히 가정생활에 있어서 많이 차지하는 시간들, 즉 수면시간, 집안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여가시간 등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둘째로, 청소년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시간별로 구분하여 하루단위에서 하는 활동, 일주일단위에서 하는 활동, 한달단위에서 하는 활동, 일년단위에서 하는 활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셋째로는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수면시간, 공부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같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생

(표 I)

연구내용 문항구성

영역		내용	문항	
생활시간 과 여가 활동시간	생활시간	① 학교(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② 수면시간 ③ 학교수업 이외의 공부시간(직장근무 이외의 직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시간) ④ 여가시간 ⑤ 집안일하는 시간 ⑥ 여가활동을 위해 다른 시간을 줄인다면	[1] [7]	
	여가 활동	하루 단위	① TV 시청 ② 라디오 청취 ③ 독서 ④ 운동 ⑤ 음악감상 ⑥ 만화가계의 이용정도 ⑦ 전자오락실의 이용정도	[4]
		일주일단위	① 친구를 만남 ② 쇼핑 ③ 종교활동 ④ 비디오 시청	[4]
	시간	한 달 단위	① 영화·연극·전시회·연주회등 관람 ② 스포츠관람 ③ 단체활동 ④ 클럽활동 ⑤ 아르바이트	[4]
		일 년 단위	① 여행 ② 등산·캠핑 ③ 수영장	[4]
		생활시간에 대한 만족도	①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② 수면시간에 대한 만족도 ③ 공부시간에 대한 만족도	[5]
여가 활동 장소와 비용	여가 활동 장소	① 친구와 주로 가는 곳 ② 늘려야 할 여가장소 ③ 여가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	[24] [12] [6]	
	친구와의 대화	④ 여가활동별 용돈지출 ⑤ 친구와의 대화내용	[3] [25]	
청소년의 대체증대 체 이용 실 태	전파매체	①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② TV를 보는 이유 ③ TV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④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⑤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	[13] ~ [18]	

청소년 의대체중 매체이용 실태	인쇄매체	① 구독하는 신문 ③ 자주 보는 잡지	② 많이 읽는 기사 ④ 잡지구입 경로	[19] ~ [23]	
	독서실태	① 학생잡지 ④ 전기·위인 ⑦ 종교·철학	② 하이틴소설 ⑤ 만화 ⑧ 시집	③ 소설·수필 ⑥ 사회과학서적 ⑨ 과학서적	[23]
청소년의 단체활동	단체활동 실태	① 경험 유무 ③ 참여하지 않는 이유 ⑤ 필요성과 유익성	② 참여 동기 ④ 만족도 ⑥ 활동상의 문제점	[26] ~ [29]	
	사회봉사활동 실태	① 농촌봉사활동 ④ 야학 ⑥ 고아원·양로원 방문 ⑦ 교통캠페인 ⑨ 불우이웃돕기	② 탁아봉사 ⑤ 위문편지쓰기 ⑧ 환경보호캠페인 ⑩ 거리청소활동	③ 장애인돕기	[30]
	특별활동참여실태	① 외국어회화 ④ 봉사활동 ⑦ 예능활동 ⑨ 청소년 단체활동	② 스포츠 활동 ⑤ 전통문화활동 ⑧ 예절수양활동	③ 문예활동 ⑥ 과학활동	[10]
여가활동 에 대한 인식	여가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① 여가활동의 필요성 ③ 현재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④ 현재 여가활동에 불만스러운 이유	② 여가활동이 필요한 이유	[8] ~ [11]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들의 태도	① 동성친구와의 교제 ③ 영화, 연극관람, 연주회, 전시회 ④ 종교활동 ⑥ 대중가요 콘서트 ⑧ 스포츠 관람	② 이성친구와의 교제 ⑤ 클럽, 단체, 동아리활동 ⑦ 등산, 캠핑	[2]	
배 경 인	인구학적 특성	① 성별 ③ 학력	② 연령 ④ 거주지		
	사회경제적 특성	⑤ 종교 ⑦ 가족전체의 월평균 소득	⑥ 부모님의 직업		
	지역별 특성	⑧ 직장근무연한 ⑩ 월 평균소득)	⑨ 종사하는 직종		

활을 하고 있다. 평일의 경우 평균 9.3시간을 학교나 직장에서 보내고 6.7시간의 수면을 취하며 2.6시간을 공부하고 0.7시간 정도 집안일을 하며 2.2시간의 여가시간을 갖는것으로 나타났다. 토요

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평균을 계산해도 학교나 직장에서 7.5시간, 수면이 7시간, 공부에 2.6시간, 집안일에 1시간, 여가시간으로 3.1시간을 쓰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간 구성에 대한 만

족도에 조사한 결과 대학생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여가·수면·공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이렇게 부족하나마 주어진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들은 평균여가시간이 3.1시간인데 이중 2.4시간을 TV시청에 쓰고 있으며(73%) 여가시간중 TV시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토요일(83%), 일요일(75%)에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여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주일 단위로 질문한 여가생활 실태를 보면 친구를 만나는데 주당 평균 3.5시간을 사용하며, 이 밖에도 쇼핑에 1.8시간, 비디오 시청에 1.6시간, 종교활동에 1.3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만남에 대학생과 근로청소년(5~6시간)들에 비해 중·고학생들은(2.4~3.5시간)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쇼핑은 근로청소년(2.7~3.8시간)과, 여자 대학생(3.1시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한달 단위로 질문한 활동을 보면, 월 1.5회 정도 영화·연극·전시회관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체활동과 클럽활동을 각각 1.1회와 1.2회 정도 하며, 스포츠 관람은 0.7회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단위로 질문한 활동유형을 보면 여행, 등산·캠핑, 수영장가기를 각각 1.8-1.9회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생활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하루의 약1/3인 7.5시간을 학교나 직장에서 보내고 가정에서는 약 7시간의 수면을 취하며, 2.6시간을 공부하고 1시간정도 집안일을 하며 약 3.1시간을 여가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가시간, 수면시간, 공부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은 제외하고는 모든 청소년들 대부분이 여가, 수면, 공부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여가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활동시간을 줄인다면 어떤 시간을 줄이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 청소년들이 수면시간을 줄이겠다고 대답한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생활의 시간적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주어진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 단위의 여가활동은 TV시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주일 단위의 여가활동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한달 단위의 여가활동은 영화·연극·연주회·전시회 관람등으로 운동이나 독서, 서클이나 클럽활동 등 적극적인 청소년활동보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쉽게 접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가생활 자체가 폭넓은 경험을 쌓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주로 가정내에서의 단조로운 생활에 그치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활동들은 중, 고, 대, 그리고 근로청소년의 집단에 따라서 또한 남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중학생들은 TV를 본다든지, 근로청소년은 독서를 많이 한다든지, 또는 남자는 운동을 많이 하고 여자는 라디오를 많이 듣는다든지 하는 등 다양한 청소년집단의 특성과 요구들을 잘 고려하여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시간 및 여가활동시간의 조사결과, 우선 청소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그나마 부족한 여가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학력위주의 경쟁적 교육풍토 또는 엘리트주의 청소년문화와 여가생활의 여가생활의 중요성과 인식의 부족이 만들어낸 기성세대의 결과물로 생각된다.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성인들의 소비성 여가생활에 비해 청소년기의 여가생활이 건전한 인격의 성장과 자기실현 및 자기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우선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을 생각하고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좀더 여유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의 폭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가생활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가의 교육화와 청소년이 주로 하는 여가활동들을 개발, 보급 및 지원의 확대를 하되 다양한 청소년집단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자기가 원하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II. 청소년의 여가활동 장소와 비용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간, 장소, 비용일 것이다. 우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장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여가활동기간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 고등학생은 학업의 부담에, 근로청소년들은 업무에 쫓겨 여가활동 시간을 여유있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이미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절대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의

불합리와 대부분 시설이 청소년의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나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여가활동을 하는데에는 반드시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서구의 선진국가에서는 청소년에게는 무료 또는 파격적인 할인혜택으로 여러가지 시설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소년을 중요한 상품판매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장에서의 기간조사에 이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여가를 보내는 장소와 여가비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주로 친구들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므로 친구들과 주로 나누는 대화내용이 무엇인지도 조사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친구와 만나서 가는 장소 청소년들이 친구와 주로 가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아본 결과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장소는 친구집(23.7%)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36%)과 고등학생(21.6%)에게 친구집은 가장 주용한 만남의 장소이다. 중학생의 경우 친구집(26.2) 이외에 전자오락실(13.9%), 탁구장·수영장 등 체육시설(10.4%)이 주요한 장소이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친구집(21.6%)과 함께 분식센터나 제과점(15.3%)과 쇼핑센터(11.2%)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54.5%가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을, 16.7%가 술집·디스코텍·노래방 등 유흥업소를 가며,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39.7%가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을, 10.4%가 술집·디스코텍·노래방을 중요한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자청소년들은 친구집, 분식센터나 제과점, 커피숍과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을 남자들보다 더 이용하고,

남자청소년들은 탁구장이나 수영장 등 운동시설, 전자오락실, 술집·디스코텍·노래연습장 등을 여자보다 더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가시설을 보면 캠프장과 수련장(15.9%), 체육시설(15.7%), 공원(13.8%), 오락시설(11.8%), 청소년회관(11.5%) 등이다. 중·고등학생들은 캠프장과 수련장을 더 많이 원하고 있고, 대학생이나 근로청소년들은 체육시설과 공원을 더 많이 원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들은 체육시설과 오락시설을, 여자들은 청소년회관이나 청소년극장 등을 더 많이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해보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36.6%가 '여행'을 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15.7%가 '사회경험을 쌓기위한 아르바이트', 9.7%가 '스포츠 활동'을 선택하였다.

청소년들이 용돈을 사용하는 주요한 용도는 '군것질, 간식비(34.2%)'와 '친구와의 만남(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선물·교제비' 등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여가활동비용은 직접 부모에게서 타서 쓰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친구와 만나서 나누는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잡담에 28.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이성문제(24.3%)', '공부/직장문제(17.3%)', '진로문제(11.7%)' 등이었다.

이상의 조사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경우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친구집이고, 대학생이나 근로청소년의 경우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그리고 유흥업소 등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여가생활을 다양하게 즐기지 못하고 또한 즐길 만한 장소도 한정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남녀별로 주로 가는 장소가 크게 다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가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런 시설이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청소년의 취향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시설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전용시설을 학교교육을 통해서 주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중, 고등학생 청소년들은 캠프장이나 수련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늘려야 할 시설로 등담하여 현재 주로 극기훈련이나 수학여행의 형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시설들이 부족하거나 미비한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교적 자유롭게 여가활동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대학생과 근로청소년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공원등을 우선 늘려야 할 시설로 응답하여 그런 시설이 아직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자 청소년은 체육시설의 확보 등 옥외시설의 확보를 요구한데 비하여 여자청소년은 청소년극장이나 청소년회관 등 실내활동시설을 요구한 것을 고려하여 남녀청소년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하고싶은 여가활동은 '여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이 청소년에게 주는 유익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 특히 선진각국은 청소년들의 여행을 권장하고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그런 여건이 배려되어있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이러한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유스호스텔의 시설이나 청소년에 대한 여러가지 할인 혜택 등 청소년의 여행관련 시설이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 청소년은 용돈의 대부분을 군것질과 간식,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에 편중되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 고등학생

의 경우에는 군것질과 간식, 대학생과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친구와의 만남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용돈을 이렇게 편중되게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에서나 가정, 또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도 합리적인 소비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잡담의 비중이 줄고 진로문제가 점점 대화의 주된 내용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는 취업난으로 인하여 매우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성문제는 모든 집단의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대화내용이며,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공부문제가, 근로청소년은 직장내의 문제가 주요한 대화내용임을 알 수 있다.

IV. 청소년 단체활동과 여가생활

본장에서는 청소년 단체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청소년 단체를 통한 여가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크게 청소년 단체활동의 실태, 청소년 사회봉사활동 실태, 특별활동의 참여 실태로 구성하여 알아보았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단체활동 청소년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39.8%는 참여해 본 적이 있으나 58.4%는 참여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31.5%이며, 고등학생은 40.0%, 대학생은 72.5%이고 근로청소년은 37.8%이었다.

참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신의 판단(61.0%)'이며 '친구의 권유(17.0%)', '선배의 권유(10.2%)', '부모님의 권유(4.0%)', '선생님

의 권유(4.2%)'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61.0%)', 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시간이 없어서(19.4%)' '부모님의 반대로(11.7%)', '가입하기 힘들어서(8.6%)'등으로 나타났다.

단체활동 참여자의 경우 59.9%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스럽다고 한 사람은 13.0% 이었다. 이들은 단체활동의 장점으로 '많은 친구들과 사귄다.(35.8%)'는 것과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다(34.3%)'는 것을 들었다. 반면 단체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문제점으로는 '단체내에서의 견충들이 있었다(25.8%)', '학교측에서 협조해 주지 않는다(21.6%)'와 함께 부모님의 반대(17.2%)와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14.9%)을 들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해 본 적이 있는 사회봉사활동은 '위문편지쓰기(60.0%)'와 '불우이웃돕기(55.0%)'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보호캠페인(24.0%)', '고아원, 양로원 방문(17.4%)', '교통캠페인(15.6%)' '농촌봉사활동(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위문편지쓰기, 불우이웃돕기, 환경보호캠페인, 교통캠페인 등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참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은 농촌봉사활동(15.1%)과 환경보호캠페인(14.9%)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청소년들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농촌봉사활동, 야학, 교통캠페인 등을 하고 싶어하고, 여자청소년들은 고아원·양로원 방문, 탁아봉사, 장애인 돕기 등을 남자보다 더 하고 싶어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특별활동으로는 예능활동(13.4%), 문예활동(10.5%), 봉사활동(10.5%), 스포츠활

동(10.2%), 외국어회화(7.5%), 청소년단체활동(6.7%) 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18.4%에 이르며 특히 대도시에는 2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평가를 보아도 활발하게 한다는 청소년은 30.5%에 불과하고 ‘그저 그렇다’가 26.1%,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다가 31.2%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특별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조사분석에서 나타난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단체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단체활동의 실태면에서 보면 우선 단체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은 대학생 72.2%가 참가한데 비하여 중학생(31.8%), 고등학생(41.0%)과 근로청소년(39.2%)은 참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특히 중, 고등학교와 근로청소년들의 단체활동 참가를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체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만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점,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점과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로 나타나 사회적 요구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증대하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활동의 참가 기회의 확대를 통해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전전한 성장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체활동을 하는데 가장 곤란한 점으로는 단체내에서의 의견충돌, 학교측의 비협조, 부모님의 반대, 성적이 떨어지는 것 등이 지적되었다. 단체 내의 의견충돌의 많이 지적된 것으로 보아 화해와 협동심 증진에 대한 훈련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의 비협조를 가장 애로점으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입시위주의 고등학교 교육 분위기가 입시준비와는 관련이 적은 단체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이라는 그릇되고 왜곡된 교육계와 학부모의 인식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청소년 단체활동에 참여한 동기로는 ‘자신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나, ‘친구의 권유’도 중요하며, 중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권유’와 ‘선생님의 권유’가 중요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선배의 권유’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자신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는 ‘시간이 없어서’를 들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반대’도 큰 이유이며, ‘가입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이유로 제시되었다. 단체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전전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단체가입 기회의 확대와 함께 학교와 부모님의 입시위주의 교육관 및 교육풍토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단체활동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통토의 개선이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요하는 문제라면, 청소년 단체 가입기회의 확대는 청소년단체의 양적확대와 적극적인 홍보 및 단원 모집활동의 강화는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겠다.

둘째, 청소년이 단체 또는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실제로 청소년이 경험했던 활동은 비자발적인 소극적인 것이 많으며 현재 하고 있는 사회봉사활동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문편지쓰기와 불우이웃돕기는 가장 보편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환경보

호캠페인도 상당히 참여경험이 높은 편에 속하며, 농촌봉사활동은 대학생에게서, 고아원·양로원 방문은 대학생과 근로청소년들 사이에서 참여경험이 많은 활동이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으로는 역시 불우이웃 돕기, 환경보호캠페인, 위문편지 쓰기가 보편적이며 농촌봉사활동은 대학생 중에서, 고아원, 양로원 방문은 근로청소년 사이에서 널리 참여하는 편에 속했다.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가장 보편적이었던 불우이웃돕기와 위문편지쓰기 대신에 환경보호캠페인, 농촌봉사활동, 고아원·양로원 방문, 탁아봉사, 장애인돕기, 야학 등 시사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이 선택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좀 더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단체 및 서클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의 여가시간의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특별활동은 예능활동, 문예활동, 봉사활동, 스포츠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의 15.1%와 고등학생의 17.0%가 특별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풍토에서 특별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나마 형식적으로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학교가 많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 청소년 단체활동의 애로점으로 시간이 없다는 응답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아무리 입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두 시간의 특별활동을 자습시간이나 수업시간으

로 대체한다고 해서 얼마나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도 의문이지만 청소년의 전인교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기존의 특별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V.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실태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대중매체에 할애하고 있는 현실과 대중매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따로 대중매체의 이용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중매체는 전파매체와 인쇄매체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전파매체로서 TV와 라디오, 그리고 인쇄매체로서 신문, 잡지, 도서 등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얼마나 또 어떤 종류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TV시청이 청소년 여가시간의 7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앞에서 알 수 있었다. TV를 시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미있기 때문'인 것(49.6%)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위해(16.5%)'와 '습관적으로(13.4%)'가 지적되었다. 연령별로 볼 때 연령이 낮을수록 지식의 전달보다는 흥미위주로 보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자청소년들이 이러한 경향이 더 강했다. 남자의 경우에는 외국영화, 스포츠, 뉴스 등을 선호하고 여자는 드라마, 대중가요, 쇼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남자보다 높았다.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하는 청소년은 19.3%에 불과했고 '그저그렇다'고 하는 청소년이 38.9%, '불만스럽다'고 하는 청소년이 38.1%에 달해, 전반적으로 불만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드라마(36.4%), 청소년을 위한 쇼프로그램(24.4

%), 청소년특집(18.3%) 등이 있다.

중학생의 경우 29.6%가 일반신문을, 23.3%가 스포츠 신문을 자주 읽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34.4%가 일반신문을, 29.4%가 스포츠 신문을 자주 보고 있다. 스포츠 신문의 경우 중학교 남학생의 33.0%(여학생은 13.9%), 고등학교 남학생의 39.7%(여학생은 19.8%)가 자주 읽고 있어서 남학생들이 많이 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관심있게 읽는 기사는 연예(30.5%), 스포츠(19.5%), 사회면(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 남자는 스포츠를, 여자는 연예기사를 더 관심있게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1년에 11권정도 책을 읽고 있으며 분류별로 보면 소설·수필을 3.5권, 만화는 2권, 학생잡지를 1.1권, 하이틴 소설을 1.0권정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파매체의 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TV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주로 정보나 지식의 전달보다는 흥미위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의 경우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청소년과 대학생의 경우에는 TV가 정보와 지식획득의 중요한 수단인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남자는 주로 외국영화, 스포츠, 뉴스 등을 선호하고 여자는 주로 드라마, 대중가요, 쇼프로그램을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만 정도가 높아져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과들을 놓고 볼때 청소년들이 단지 오락의 수단이나 지식과 정보획득의 수단 어느 한 쪽만 추구할 것이 아

니라 양면을 다 고려한 TV시청이나 라디오 청취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고 방송사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청소년층을 겨냥한 프로그램의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인쇄매체의 경우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신문을 주로 구독한다는 사실과 대부분 스포츠와 연예기사를 중심으로 읽는다는 사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소설이나 수필을 많이 있으며 연간 3.5권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로 대학생과 근로청소년들이 책을 많이 읽으며 중, 고등학생들의 독서량은 저조한 형편이다. 이는 임시위주의 교육과도 관련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잡지구독에 있어서는 청소년잡지를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예기사나 만화 등으로 채워진 청소년잡지의 질을 생각할 때 우려되는 바가 많다.

이러한 점들을 통하여 시사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임시위주의 교육병폐를 통하여 인쇄매체에 대한 거부감도 동시에 가질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교훈이나 감동을 얻기위해서 독서를 하기보다는 잠깐의 휴식이나 기분전환을 위해 감각적이고 흥미있는 연예기사나 스포츠 등에 대한 잡지나 기사들이 청소년을 상업화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문화형성의 중요한 매체로서의 역할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회는 한편으로는 청소년 인쇄매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도서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양질의 청소년 잡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에게 노출되어 있는 각종 음란, 퇴폐, 폭력성 신문이나 잡지 등의 출판 및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Ⅶ.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청소년기에 있어서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점, 청소년들의 사회적 인관관계 형성의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형성과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청소년 스스로도 여가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궁극한 일이다. 청소년들은 과연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필요성을 느낀다면 어떤 점에서 느끼는지, 현재의 여가활동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다면 어떤 점에서 만족하지 않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서 청소년 스스로에게는 여가활동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가활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향되어야 할 여가활동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하는 여가활동들에 대해서 부모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출가를 해서 결혼을 할 때까지 부모의 보호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모든 활동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부모의 간섭을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급학교의 진학이 부모들의 가장 큰 바램이기 때문에 진학을 위해서는 다른 여타의 것을 희생시키고 맹목적으로 학교공부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모의 기대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부외의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취미생활이나 정서생활 등의 여가활동을 몇몇하게 하기 보다는 몰래 하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여러가지 여

가활동에 대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조사를 통해서도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과 문제점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밝혀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은 여가활동이 ‘매우 필요’하거나(34.4%), ‘필요하다(48.0%)’고 보고 있어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여가활동을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42.1%)’와 ‘심신의 휴식을 위하여(25.8%)’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52.3%의 청소년들이 현재의 여가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불만을 느끼는 이유는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과 장소가 너무없다(43.4%)’와 ‘시간이 너무 없다(29.1%)’는 것들이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를 보면 동성친구와의 교제와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허용적이다. 대중가요콘서트, 이성친구와의 교제, 클럽·단체·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비허용적인 경향이 높고, 영화·연극·연주회·전시회 등의 관람과 등산·캠핑,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중간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들의 태도결정에 중요한 기준은 공부에 방해가 되느냐 아니냐에 관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의 태도에 대한 조사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주로 생활을 즐기고 심신의 휴식을 위해 여가가 필요하며 여가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에 대한 불만의 이유로는 여가시설과 장소, 여가시간, 그리고 여가비용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청소년들 특히 중고생들은 심신의 휴식을 원하고 있으며 여가를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여가를 즐기려는 여가활동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는 바람직 하며 따라서 여가교육에 대한 활성화가 더욱 요청된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생과 근로청소년들이 여가활동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시교육과 장시간의 근로시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여가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간, 공간, 돈의 문제가 그대로 불만의 이유로 나타났다는 것은 청소년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근본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교육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경제적 여건은 사회나 국가의 정책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들은 비교적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로 나타나 여가활동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특히 청소년들이 영화·연극·연주회·전시회 등을 관람하는 것이나 등산이나 캠핑, 그리고 청소년의 클럽·단체·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는데 방해되거나 아니나의 준거에 더 많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청소년의 동성친구와의 교제에 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나쁜친구를 사귀거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는 생각하고 있지만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공부와 관련하여 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율성도 상당히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청소년의 부모가 남자청소년의 부모보다 이성교제에 대해서 다소 더 부

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종교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대중가요 콘서트에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수의 부모들, 특히 중,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의 부모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클럽·단체·동아리활동에 대해서도 부모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소년 스스로의 자율에 맡겨 두거나 공부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 허락하는 부모들도 상당수가 있어서 청소년들을 이해하려는 부모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청소년의 여가 활동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고 그 자체가 청소년의 건정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장려해야 할 활동이다. 따라서 오직 공부에만 모든 비중을 두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부모들의 의식이 좀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나 국가도 청소년여가활동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격려해 주고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 대한 여가교육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VII. 정책제안

첫째, 청소년들의 학업 및 근무부담을 감소시켜 대학생 정도의 여가시간은 갖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학교나 직장에서의 학업과 근무시간, 개인적인 공부시간 등의 부담 때문에 제대로 여가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 스스로 제시한 여가생활의 불만이유도 시간부족과 과도한 학업 혹은 근무량 때문이었다.

학업부담을 줄이는 문제는 학력주의 사회풍토 속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

서 이상적인 구호에 불과할 정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전반적으로 특정 수준의 졸업장이 없어도 무시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학교공부를 못해도 다른 능력이 높게 평가되는 학교의 평가제도 정착 등 오랜 시간과 광범위한 분야에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가능한 부분에서라도, 예를 들면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보다는 실업계 학교에서 먼저 실시하여 확대해가는 의욕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 평가의 다원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학력위주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력중심의 학생평가제도가 다양한 기준에 의한 평가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청소년 스스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학생평가의 다원화 문제는 입시제도의 개혁 자체보다는 우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시와 관련된 시험성적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여러가지 기능이나 예능,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이나 선행, 클럽 활동 등이 평가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이 전전하게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공원, 오락시설, 청소년회관, 캠프장과 수련장, 유스호스텔 등을 적절하게 증설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보면 친구집 이외에 중학생의 경우에 전자오락실, 탁구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고등학생의 경우 분식센터나 제과점, 쇼핑센터가 활용되고, 대학생과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술집·디스코텍·노래방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중에 전자오락실, 분식센터, 술집·디스코텍·노래방 등은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곳이다. 한편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의

불만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과 장소가 너무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청소년들이 더 설치되기 원하는 공간은 캠프장과 수련장, 체육시설, 공원, 오락시설, 청소년회관 등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들이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으로 여행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유스호스텔과 같은 시설도 청소년을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전전하게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공원, 오락시설, 청소년회관, 캠프장, 유스호스텔 등을 이용하기 쉬운곳에 적절하게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공간의 이용료는 국고보조나 관심있는 기업·단체·개인 등의 보조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들에게 여가활동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은 얼마안되는 여가시간을 대부분 TV 시청에 사용하고 있으며 수동적이고 단조로운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여가활동의 공간과 비용 등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교육이 학교나 청소년 단체, 대중매체 등을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 여가활동교육의 내용은 우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다는 등의 여가활동의 유의성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밖에 다양한 여가활동 방법과 공간, 단체 지도자 등 자원, 그 이용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이용방법을 잘 모르거나 단체에 가입하는 방법을 몰라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밖에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대인관계나 공동체훈련 등도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 단체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내부의 의견충돌'이 지적되었던 것을 볼 때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다섯째, 여가에 대한 교육은 교사, 청소년 지도자, 부모 등 성인들에게도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년 여가활동 교육은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학교교사나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에 영향을 주는 성인들에게도 필요하다. 이들은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해 알고 있고, 긍정적인 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청소년들에게 소개해 주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변화하는 욕구를 반영시킬 새로운 활동을 창안하거나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여행이라든지, 각종 봉사활동이나 캠페인 등을 파악하여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격려해주어야 한다. 가정에서의 부모들 또한 전전한 인격형성, 청소년 문화창출, 비행예방 등 여가활동의 유익한 점들을 잘 인식하여 공부에 방해된다고 금지하기에 앞서 전전한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허용할 필요가 있다. 성인에 대한 여가교육의 필요성은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생님, 부모, 교사의 권유나 반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분명해진다.

여섯째, 여가활동 교육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앞서 제안한 청소년 자신과 교사, 청소년 지도자 부모들에 대한 여가활동 교육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가활동 교육은 여가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같이 장기적이고 가변성이 적은 부분도 있지만 여가활동 자원 및 기회에 관한 정보는 수시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중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전환 역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대중매체를 통한 광범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역단위의 정보는 지역신문이나 회보 등 적절한 매체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다.

일곱째, 대중매체를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이용교육을 시켜야 한다.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 창조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시간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공간, 자원, 비용의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오랜 시일을 요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청소년 여가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TV시청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TV 바로보기'와 같은 대중매체 이용교육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오늘날 청소년들은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많은 출판물, 방송 프로그램에 접하게 된다. 따라서 수많은 제작물들 가운데서 양질의 작품을 선별하고 저질물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올바른 대중매체 이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교의 특별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 청소년의 경우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특별활동이 교육과정의 일부라 하더라도 학생들은 특별활동을 통해서 심신의 여유를 갖게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특별활동 내용을 더욱 다양화 함과 동시에 현재의 형식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방향으로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교사들의 자질도 향상되어야 하며 현재의 부족한 시설이나 보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각종 단체활동과 동아

리 활동을 자율화 해야 한다.

청소년 단체활동과 동아리 활동은 여가생활 활성화는 물론 청소년들이 서로돕고 더불어 사는 생활을 익히는 중요한 무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학업부담 이외에도 학교의 규제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대개의 경우 학생지도를 이유로 소수 특정단체를 제외하고는 단체활동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청소

년 여가활동의 활성화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체 및 동아리 활동을 자율화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체활동이 자율화되면 일시적으로는 금기의 해체에서 오는 부작용은 있겠지만 지도교사의 활용 등을 통해 대처하면서 장기적으로 자율적으로 절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